

나는 마을 앞 나무 한 그루가 싫다.
주머니 속 성냥 한 개비로 나무를 태워보자.
시작도 못 하고 사그라드는 불씨.

나는 마을 앞 나무 한 그루가 싫다.
마음 맞는 친구들 불러 각자의 성냥으로 나무를 태워보자.
나무 한 그루야 순식간에 태워버리는 불씨.

우리는 동네 뒤 편 오래된 숲이 싫다.
마음 맞는 친구들 불러 각자의 성냥으로 숲을 태워보자.
숲이야 순식간에 태워버리는 불씨.

우리는 마을의 허름한 느낌이 싫다.
마음 맞는 친구들 불러 각자의 성냥으로 느낌을 태워보자.
허름한 느낌이야 순식간에 태워버리는 불씨.

우리는 마을이 싫다.
뒤를 돌아보니 더 이상 우리 마을에 남은 것이 없다.
그 고운 마을은 온데간데없고 병든 우리뿐이다.



불씨 그리고 불



2016년 12월 9일이 무슨 날인지 기억이 나는가?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목소리가 전국을 울려 퍼졌다. 6년이 다 돼가는 사건이지만, 나에게 그 청량한 떨림은 아직도 충격을 가져다준다. 개인의 불씨는 가볍고, 보잘것없었지만, 광장에 모인 우리의 불의 무게는 천근보다 무겁고, 강력했다. 그날 우리 국민은 강한 불꽃으로 추운 겨울을 몰아내고 함께 봄을 이루어 내었다.

우리 국민들은 광장에 모여 불꽃을 만들었고, 재판관들은 올바르게 정당한 판결을 통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 내었다. 이 사건은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씨의 힘을 느낄 수 있었던 멋진 경험이었다.

화력 조절

<p>뉴스 장경태, 野 지도부 중 최초로 '윤석열 탄핵 촛불집회' 참석 장경태, 野 지도부 중 최초로 '윤석열 탄핵 촛불집회' 참석. "민생 민심 무시하는 윤 정부 절대 좌시 않겠다."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2022-12-... 3시간 전</p>	<p>주간조선 李수사 급물살타자 野에서 "尹 퇴진", 兪는 "대선 불복" ...아스팔트 위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치며 걸음을 다지고 있다'면서 '취임 6개월된 대통령에게 탄핵, 퇴진이 멀어 되는 소리인가? 1개월 전</p>	
<p>뉴스프리존 '윤석열 탄핵' 방법 4가지 소개한 '김포 JYP' 시사평론가인 박진영 숙명여대 객원교수(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연단에 올라 '윤석열을 몰아내자'라고 외치며 시민들에게 '윤석열 탄핵'을 위한... 2주 전</p>	<p>여성경제신문 [상기노 칼럼] '최병렬' 최병렬이 윤석열에게 남긴 것 하지만 그는 한나라당 대표로서 한창상 상 초유의 대통령(노무현) 탄핵소추를 주도한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을 관철시키기... 2주 전</p>	
<p>팔간조선 북한의 윤석열 탄핵 지령 떨어졌다..박근혜 탄핵도 개입 북한이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인준했다.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이는 24일 "국민들은 윤석열이 친척 비보들이 들어왔어 자꾸만 위태로운 상황... 3주 전</p>	<p>시사저널 또 꿈틀대는 '尹대통령 탄핵'... "지지도 10%대가 한계선" 윤석열은 퇴진하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서울 창계광장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에 참석해 외친 말이다. 민주당 내에선 윤... 2022. 10. 11.</p>	

인터넷에 올라오는 뉴스 기사를 보면 현 대통령 '탄핵' 관련 기사를 하루에 20개는 쉽게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충분한 사유가 되지 못하지만 일단 '탄핵'이라는 자극적인 말로 포장하고, 쉽게 거론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국민들에게 '탄핵'이라는 단어가 가까워졌고, 쉬워졌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박 대통령 탄핵 사건을 통하여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은 것도 맞고, 함께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든 것도 맞다. 하지만 현재 무방비하게 단어 '탄핵'이 사용되는 경향들은 나의 정치적인 견해를 제외하고 본다고 하여도 옳지 못하다. 불씨를 모아 불을 만든다면 큰 힘을 가지기에 큰 힘을 가진 만큼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단순하게 좋아보이지 않는다고, 또 자신의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불을 남용한다면, 어느 순간 주위에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게 될 것이다.

'탄핵'은 마지막 수단이 되어야 하며, 쉽게 오르내리면 안 되는 말이다. 그 말의 무게가 무겁기에 우리 모두는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불씨를 소중히, 그리고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탄핵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이전에, 정치적 이념이나 개인의 기분에 따라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 아직 현 정권에 있어서는 아직 임기 초반의 단계이기에 성급하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켜보아야 한다.

기자들 또한 사람의 수요에 따라 자극적인 기사만을 쓰고, 단순히 조금만 잘못하여도 까 내리는 것이 아니라, 현 정권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결정한 대표이기에 기다리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불꽃 (火花)

불씨 혼자만으로는 불꽃이 될 수 없다. 불이 강하기만 하다고 해서 불꽃이 될 수 없다. 일정 온도, 습도가 맞춰졌을 때 진정한 아름다운 불꽃이 피어날 수 있다. 우리 또한 진정으로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감정이나 이념에 휘둘려 선부른 판단을 하기보다는 정확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

불의 사용은 아주 인간에게 많은 이로움을 주었다. 예를 들어 고기를 익혀 먹어 식중독을 예방한다든지, 야생 맹수로부터 자신을 보호를 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불은 동시에 산불을 일으킨다든지, 거주지를 불태우며 공포의 존재이기도 했다. 마치 초창기 인류에게 불이 이로움을 주는 동시에 두려움의 존재였던 것처럼, 현재의 인류 또한 개개인에게 주어진

불씨를 잘 활용하여서 이로움을 얻음과 동시에, 두려운 존재임을 잊지 말고 활용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